

동반성장 잘한 36개社 선정… 삼성전자, 10년 연속 ‘쾌거’

동반성장위, 동반성장지수 발표
삼성·SKT 등 20곳 ‘최우수 명예’
애경·신성이엔지 등 10곳 ‘미흡’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디스플레이, 포스코 등 36개사가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삼성전자(10년), SK텔레콤(9년), 기아(8년), 현대트랜시스,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SK(이상 7년), LG화학(6년) 등 20개사는 ‘최우수 명예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2011년을 기준으로 이듬해 공표를 시작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서원유통, 신성이엔지, 심텍, 애경산업,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일진글로벌, 타이코에이엠피, 타타대우상용차,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한국콜마는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애경산업, 티센크루프엘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최우수·미흡 등급 기업>

등급	기업명
최우수 (36개사)	기아, 네이버, 농심, 대상,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삼성SDS, 세메스, 유한킴벌리, 이노션, 제일기획, 파리크라상, 포스코,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CJ제일제당, DL이앤씨, GS리테일(GS25),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화학, LG CNS, SK주식회사, SK에코플랜트(前SK건설), SK지오센트릭(前SK종합화학), SK텔레콤, SK하이닉스
미흡 (10개사)	서원유통, 신성이엔지, 심텍, 애경산업,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일진글로벌, 타이코에이엠피, 타타대우상용차,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한국콜마

가나다 순. 회사의 종류 표시 생략.

/동반성장위원회

리베이터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에도 미참여해 빈축을 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6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전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이듬해 6월 중 공표해왔지만 올해는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시기를 이달로 미뤘다.

지난해 기준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은 총 210개사로 이 가운데 ‘최우수’ 36곳, ‘우수’ 63곳, ‘양호’ 70곳, ‘보통’ 19곳, ‘미흡’ 10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10곳과 ‘의무고발료제도’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기업 2곳 등 12곳은 이번 발표 명단에서 빠졌다.

지난해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의 ‘공정

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같은 비율로 합산한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또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0개사에 대해선 ‘미흡’ 등급을 부여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미흡’ 등급을 받은 기업 중 애경산업과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미참여 외에도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를 위한 협력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법 및 운영요령에 근거해 자료제출요청권을 시행했지만 이들 기업은 협력사 명단 및 미제출 사유 등을 최종 제출하지 않아 위원회에 보고하고 대외에 공표하게 됐다”고 전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업종이 전반적으로 우수했고, 가맹업종과 광고업종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업종에 포함된 회사 중에선 삼성SDS, KT, LG유플러스, LG CNS, SK주식회사, SK텔레콤이 ‘최우수’를, 포스코아이씨티와 현대오토에버가 ‘우수’를 받는 등 8개 기업이 ‘우

수’ 이상 등급이었다.

또 가맹업종에선 티센크루파상이 처음으로 최우수를 받았고 GS리테일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 광고업 중에선 제일기획 외에 이노션이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에 ‘우수’ 등급을 받은 대상, 유한킴벌리, CJ제일제당, SK지오센트릭은 ‘최우수 명예기업’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최우수’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3개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 기업은 이듬해 지수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더라도 ‘최우수’ 등급으로 인정해 같은 인센티브를 준다.

한편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에게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자 전심사(PQ) 가점 부여 ▲출입국우대 카드 발급(법무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국세청)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1년 면제(중소벤처기업부)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8월 취업자 52만명 ↑… 증가폭 넉 달째 둔화

6개월 연속 고용 회복세
도매·소매업 감소폭 커
정부 “방역위기 이전 수준”

취업자 수 증가세가 6개월 연속 이어졌지만 증가 폭으로 보면 넉 달째 축소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업 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수출 호조, 고 있다.

고용 개선세에 따라 일자리 상황이 코로나19 방역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1만8000명(1.9%)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넉 달째 둔화되고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지난 4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5만2000명 늘었다 5월(61만9000명), 6월(58만2000명), 7월(54만2000명), 지난 달까지 50만명대로 쪼그라들고 있는 모습이다. 산업별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직격탄을 맞은 도매 및 소매업(-11만3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4만3000명), 숙박음식점(-3만8000명) 등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전기차 통합 서플라이 체인 구축 한발짝”

>> 1면 ‘현대차그룹·LG엔솔’서 계속

기차 통합 서플라이 체인 구축에 한발 더 가까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상반기 각각 50% 씩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배터리셀 합작공장 설립 계약을 체결한 후 7월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약 11억 달러(한화 1조1700억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8월에는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이번 합작공장 설립으로 세계 최초의 전

/양성운 기자 ysw@

기억 속 그때처럼
함께 하고 싶은 바람 담아

올 추석,
건강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한국인삼공사

행사기간 2021.08.27-09.22

추석맞이 사은행사

1 선물용 제품 10-20% 품목 할인
* 일부 품목 제외

2 구매금액별 할인
* 25/50/75/100만원 결제 시 1/2/3/5만원 할인 (단, 회원에 한함)

3 신규회원 가입 후 첫 구매시 1만 포인트 적립
* SMS 수신동의 및 10만원 이상 결제 시

정관장몰에서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

마음에 필요 없는 매장 픽업

마음을 대신 전하는 정몰 배송

소중한 분에겐 특별 포장

지금 검색창에 정관장몰을 검색해보세요 (www.kgcshop.co.kr)

제조원 및 판매원
주 | 한국인삼공사